

“우리는 모두 중화민족이고 한가족입니다”

— 연길시 다민족 융합 사회구역인 북산가두 단영사회구역의 따뜻한 이야기



중화민국공체제(식)는 국가 통일의 토대이고 민족단결의 근본이며 정신적 힘의 원천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전국에서 유일한 조선족 자치주이자 가장 큰 조선족 집거지역으로서 다년간 민족단결진보 건설사업을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5회 연속 ‘전국민족단결진보모범집체’로 평의되었다.

올해 초, 연변에서는 중화민국공체제(식)를 확고히 수립하는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연변 민족단결진보 승격을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고 재차 제기했다. 동시에 ‘3공4동’의 상호 상감식 모범사회구역 건설을 가속화하고 연길시 북산거리 단영사회구역의 경험과 실천을 요약하여 보급하며 사회구역이 기층에 뿌리를 내리고 대중들과 융합되는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중화민국공체제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들의 인식과 중화문화에 대한 동질감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단영사회구역은 첫진의 길림성 도시지역 중화민국공체제(식) 확고히 수립 건설 프로젝트 시범점으로 국가 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단영사회구역을 제8차 전국민족단결진보 시범구 시범단위로 명명하였다. 사회구역에는 한족, 조선족, 만족, 몽골족 등 9개 민족이 살고 있으며 소수민족 인구가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한다.

다년간 사회구역당위는 시종 중화민국공체제(식)를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제반 업무의 주선으로 하면서 부동한 민족, 부동한 문화배경에서 가진 사람들이 모두 사회구역에서 귀속감을 갖도록 하고 여러 민족 대중들의 왕래와 교류 및 화목을 부단히 촉진함으로써 모두가 하나로 단합되게 하였다.

단영사회구역에는 여러 민족의 지역 주민 지어는 군인과 민간인 사이에서 발생한 감동적인 이야기와 따뜻한 에피소드가 많고 많다.

여러 민족 주민들 가족처럼 서로 보살피며

민족단결진보사업의 인도와 촉진하에 사회구역 여러 민족 주민들은 함께 굳게 뭉쳐 중화민족의 대가정 속에서 형제자매처럼 서로 돕고 보살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매일 오후 3시 30분이면 주택단지 작은 광장에서 시간에 맞춰 나온 두 자매 할머니가 운동을 하고 담소를 나눈다. 올해 86세인 한족 고숙춘 할머니와 80세인 조선족 장송금 할머니는 사회구역 활동을 하면서 서로 면목을 익혔다. 독거로인인 장 할머니는 고 할머니와 상종하면서 삶의 활력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

고숙춘 할머니는 또 자신보다 년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한 김승숙 할머니를 친언니처럼 대하며 매일 그의 집을 다니면서 자식들이 외국에 모셔갈 때까지 살뜰히 보살폈다.

단영사회구역 주민인 리광섭과 왕경합도 깊은 우정을 맺고 있다. 조선족 독거로인인 리광섭은 80세가 넘었고 한족인 왕경합은 50대이다. 두 사람은 평소 사이가 좋은 건 말할 나위도 없고 리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는 왕경합이 매일 병문안을 다니며 자신의 변변치 못한 살림에도 리 할머니가 무엇을 먹고 싶다면 다 사다가 대접하면서 정성껏 보살펴주었다.

군민이 한집식구처럼 서로 도우며

단영사회구역당위는 당시 주둔부대와 연합해 사회구역 독거로인인 류재아동에게 대리가족을 찾아주기 활동을 벌였다. 독거로인에게는 ‘군인자녀’를 찾아주어 생활에 보장이 있게 하였고 류재아동에게는 ‘새 부모’를 찾아주어 외로움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여러 민족 군민은 ‘짜를 무어’ 돕는 과정에서 깊은 정을 맺었다.

류재아동 소박은 ‘군대야빠’ 손수박이 생기면서부터 삶이 긍정적이고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부자관계’를 맺은 후 첫 아동절에 손수박은 ‘아들’에게 장난감 총을 선물하여 아이의 오랜 소망을 풀어줬다. 소박은 더 열심히 공부한 데서 성적이 중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며 ‘군대야빠’와의 약속을 지켰다. 후에 소박은 대학에 진학하고 바라던 일터에 취직까지 해 ‘군대야빠’의 자람이 되었다.

류점봉은 김승숙 할머니와 고숙춘 할머니의 ‘군대야들’이다. 류점봉은 심장질환이 있는 ‘어머니’ 김 할머니를 밤새 지켰는데 출장을 가도 매일 안부전화를 하며 안전을 확인하곤 했다. 김 할머니 또한 일에 지치는 ‘아들’이 상할세라 매일 자신이 직접 담근 약술 한잔 마시게 하고 발을 담글 때 끈끈한 물을 끓여놓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곤 했다. 혈연관계를 넘어서 이들과 ‘모자’의 정은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사회구역의 여러 민족 대중들도 있는 힘을 다해 부대의 장병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박정애 할머니는 외손자의 ‘군대야들’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

선족의 전통 보양 음식인 닭곰을 직접 고아서 가져다주며 영양을 보충하도록 했다.

또 한 군인의 안해가 남편을 방문하러 부대에 왔다가 앓게 되었는데 단영사회구역의 한족, 조선족, 만족 세 민족의 할머니가 함께 가서 그녀를 돌보았으며 교대로 여러 민족의 색다른 음식들을 만들어 가기도 했다. 이에 군인의 안해는 고마운 나머지 식구들에게 자신을 돌봐주는 ‘어머니’ 세분이 계셔서 건강이 잘 회복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전하기도 했다.

여러 민족 하나로 뭉쳐 민심을 한곳으로

단영사회구역에 가보면 곳곳에서 여러 민족의 교류와 융합을 볼 수 있다. 민족단결 리념이 주민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따라서 사회구역의 응집력과 주민들의 귀속감을 제고시키고 있다.

조선족인 조씨 아주머니는 사회구역의 민족단결 분위기에 감화되었다. 그는 세 딸이 모두 한족 청년에게 시집을 갔다. 문화, 사상, 정감이 결혼 생활에서 서로 융합되어 소가정은 물론 대가정에서도 화목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요즘 사회구역의 조선족 로인들은 모두 자녀가 한족과 결혼하는 것을 찬성한다. 그들은 한족 총각은 유능하고 처녀는 착하다고 말한다. 사회구역당위 서기 왕숙청을 찾아 자녀에게 한족 상대를 소개해주는 조선족 로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고향이 낯이 발전하고 사회구역의 분위기가 더없이 조화로운 것을 보고 느끼면서 많은 조선족 주민들은 분분히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하거나 취직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단영사회구역에 남겨진 류재아동의 수도 원래의 100여명에서 지금은 9명으로 줄어들었고 독거로인도 원래의 180여명에서 20여명으로 줄었다. 일부 주민들은 직장 때문에 연 길을 떠나면서도 여전히 위챗 사회구역 커뮤니티에서 나가기 싫어하고 집을 팔거나 호적을 옮기기 싫어하면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말한다.

“왕서기, 제가 민족을 바꾼 것을 아십니까?” 주민 서효항(徐晓航)의 말이다. “무슨 민족으로 바꾸었습니까?” 단영사회구역당위 서기 왕숙청의 궁금해하는 물음에 서효항은 “중화민족으로 바꾸었지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맞아요. 우리는 모두 중화민족이고 한가족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음꽃을 활짝 피었다.

/인민넷

단동, 맛과 문화로 하나 되는 화합의 장

‘중화 음식 단동의 맛’ 축제 성대히



일전, 료녕성 단둥시 호산장성에서 ‘중화음식 단동의 맛’ 제2회 단동의 맛 음식문화소비촉진활동 및 제5회 단동김치축제가 열렸다. 3일 동안 지속된 행사는 다양한 먹거리 체험과 문예공연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족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되었다.

성, 시 관계자들과 전국 조선족협회 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낸 행사는 단동의 다양한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 방송과 함께 참가자들이 직접 김치를 만들어보는 체험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음식의 전통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교류와 융합이기도 했다.

특히 대형 ‘술’에 56가지 식재료로 ‘천인비빔밥’ 만들기가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이는 56개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민족의상 패션쇼와 문예공연이 펼쳐지며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만족 무용〈단고무〉, 조선족무용〈선비무〉, 회족무용〈꽃〉 등 공연무대는 관중들에게 중화민족 문화의 광범함과 심오함 및 여러 민족 사이의 깊은 정을 보여주었다.

행사 기간 단둥지역 특색음식, 조선족요리, 만족무형문화재, 경태람 무형문화재 등을 포함한 약 100여개 현지 업체와 50여개 외지 업체가 단동 특색 제품 100여가지를 함께 전시하고 판매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단둥시민족단결진보촉진회 심창송 회장은 “이 행사는 단순한 음식축제를 넘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깊다.”고 말했다.

/료녕신문

조선족문화 체험하고 민속 제품 만나요

‘관광특색촌’ 평안촌 김치축제 펼쳐



제3회 평안 조선족 김치축제가 일전 료녕성 반금시 대외구 평안진 평안촌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대련리공대학 반금캠퍼스 학생들과 반금직업기술학원 학생들, 반금, 영구 부분 민간단체 대표와 회원들 그리고 반금 시민들까지 도합 1,000여명이 행사장을 찾아 조선족 문화를 체험하고 평안촌 민속브랜드 제품을 만났다.

반금시민족종교사무국과 대외구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외구문화관광팔라지오텔레비존방송국, 대외구민족종교사무국, 대외구상무국, 대외구 평안진인민정부가 공동 협조한 이번 축제는 전시,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특히 특색미식전시구역에는 조선족 특색음식을 전방위적으로 전시, 홍보했다.

개막식 문예공연에서 무용수들은 소고춤, 농악무, 민족복장쇼, 사물놀이, 장고춤, 독창 등 다양하고도 정제로운 문예종목을 선보이며 전통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해 관광객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공연 중간중간에 주최측에서는 현장에서 김치 버무리기, 천인비빔밥 퍼포먼스를 선보여 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수많은 관중들은 너도나도 김치 버무리기 체험에 나섰고 천인비빔밥을 맛보며 조선족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민족특색미식구역에서 관광객들은 다양한 조선족 특색 음식을 맛보고 문화 창의 기념품, 무형문화유산 기념품을 구매했고 민족복장을 입고 기념사진을 남겼으며 평안촌 촌사관을 참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둠의 장막이 드리우자 화려한 등불쇼가 시작되며 평안촌은 더 매력적인 모습을 자랑했다. 이어진 음악야회에서 대련리공대학 반금분교와 반금직업기술학원의 악대들은 청춘의 열기가 넘치는 멋진 공연으로 현장 분위기를 후끈 달구었다. 소수민족 문예공연은 이튿날에도 이어지며 관광객들에게 뜨거운 시청각 향연을 선물했다.

3회째 열리는 평안 조선족 김치축제는 특색 있는 문예공연, 평안촌사관 개관, 조선족 전통혼례식, 조선족 장독대 고사 등 조선족 특색 민속 행사를 통해 관광객 유치, 소비 촉진, 평안촌산 지역 제품 홍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

반금시 대외구 평안진 평안촌은 전국문명촌진, 전국민족단결진보모범집체, 중국 아름다운 레저향촌 등 국가급 영예를 지니고 있는 부유촌, 문명촌으로 생태문명 건설 경험이 중국생태문화협회에 의해 전국에 보급되었다. 특히 지난해 제3진 전국향촌관리 시범촌, 성급 ‘독수형산은금산은산’ 실천혁신기지 영예를 따냈고 료녕성 건설 지원 100개 향촌관광 중점촌에 입선되었다.

‘관광특색촌’ 모식으로 마을 진흥을 이끈 평안촌의 당지부 서기 겸 촌주임 김용은 “정부의 지지와 관심 그리고 사회 여러 단체의 단합으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평안 조선족 김치축제 브랜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며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건설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료녕신문

‘살아있는 소수민족 박물관’의 짱족 전통 자수

운남성, 귀주성, 광서짱족자치구 3개 성(구)이 교차하는 광서 백색 튕림현은 다채로운 민속 풍경으로 인해 ‘살아있는 소수민족 박물관’으로 불린다.

튕림현에서 나서자란 ‘90 후’ 반안홍은 민족 특색이 짙은 짱족 전통 자수를 너무 좋아해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자수는 물론이고 전통 의상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2020년 3월, 반안홍은 SNS를 통해 튕림현의 다채로운 생활을 공유하며 전통 의상을 알리고 현지 전통문화를 소개했다. 튕림현 시내에 자신의 작업실을 내고 전통 공예의 혁신을 위해 애쓰고 있는 반안홍은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도 전통 의상을 입음으로써 전통문화를 알리길 희망한다.”고 말한다.

/인민넷



▲ 작업실에서 자신이 디자인한 전통 의상을 소개하고 있는 반안홍